

“전남·경남 해상경계 있다... 월선조업은 불법”

(越線)

대법원 판결... 지자체간 조업구역 분쟁 종식 기대

2011년 경남어선 17척 고발... 여수시 대응 성과

전남과 경남 어민 사이에 그동안 조업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법제처와 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해상경계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으로 말미암은 어업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남 기선권현명망의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침범과 관련

한 수산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전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상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

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기선권현명망어업의 조업 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남도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관내 어장을 지키기 위해 경남 어선들이 월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경 전남도 해양수산부 조업선 17척단 31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

그러나 경남 기선권현명 선주들은 “전라남도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3년 1월경 피고인들에게 벌금 각 100만~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013년 11월경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유죄 인정된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2013년 11월 21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의 해상경계 관례와 판결문 등 자료를 확보해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화기자 chkim@

정읍시 행복농촌만들기 5개년 계획 수립

2018년까지 7400억 투입

FTA 대응 등 75개 사업

정읍시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과 관광까지 아우르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목표로 ‘행복농촌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정읍시는 15일 시 관계자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농정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담은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계획서에 따르면 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7400억원을 투자해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은 물론 관광까지 아우르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기간은 계획서 수립 첫해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이다.

‘더불어 잘사는 행복농촌 정읍’을 기본방향으로 정한 이 계획서는 농업과 식품산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개발, ‘살의 질’ 향상, 지역역량 강화 등으로 나누어 분야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계획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등 새로 발굴한 75개 사업의 추진방안을 담았다.

정읍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뒤 이달 말까지 농림식품부에 계획서를 제출해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성기 시장은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중점을 두고 5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을 정했다”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소득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 ‘환경친화적인 농생명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뽕고 끄고 줄이고 광양제철 ‘3G’ 운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안동일)가 여름철 전력소비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생활속 ‘3G(GO)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G 운동은 이란 ‘뽕고(GO), 끄고(GO), 줄이고(GO)’의 줄임말이다. 근무시간 중 컴퓨터와 냉방시설의 사용을 자제하고, 전원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완전히 차단한 후 퇴근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광양제철소는 에너지 절약의 하나로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은 오전 9~10시, 오후 1~5시에는 1시간 이내로 회의진행 권유, 사무실 조명 구획별 격등제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품질기술부 황정훈(26)씨는 “회사에서의 습관이 집으로도 이어져 냉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빈방이나 화장실의 스위치를 끄게 된다”며 “개개인의 작은 노력이 전력수급과 비용절감에 일조한다고 느껴져 3G 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광양제철소는 여름철 실내온도(26~28도) 유지와 공장 채광창을 활용한 조도 유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력, 용수, 질소 등 모든 에너지에 대한 절약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순창군, 국회 의원회관서 농산물 시식회
순창군, 국회 의원회관서 농산물 시식회

순창군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순창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및 특판행사를 개최했다. 임내현 의원, 황숙주 순창군수, 유성영·강동원 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부터).

<순창군 제공>

목포문화연대 “가요 ‘목포의 눈물’·노래비 문화유산 지정해야”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삼학도 파도깊이 스며드는데...”

목포를 상징하는 가요 ‘목포의 눈물’과 노래비(사진)를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목포문화연대는 최근 “‘목포의 눈물’과 노래비를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적 콘텐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35년 발표된 가요 ‘목포의 눈물’(문일석 작사, 손목인 작곡)은 목포 출신 가수 이난영(본명 이옥례·1916~1965)의 대표곡이다. 목포항을 배경으로 이별의 끝없는 아픔과 서러움을 그리고 있으며, 나라 잃은 슬픔을 달래준 상징적인 곡이기도 하

다.

또 1969년 목포약기점을 운영하던 박오주 씨가 유달산 기슭에 세워 기증한 ‘목포의 눈물’ 노래비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 노래비로서 의미가 있다.

정태대 문화연대 공동대표는 “올해는 ‘목포의 눈물’이 발표된 지 80주년이고, 내년은 이난영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라는 해”라면서 “문화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대중가요의 문화적 콘텐츠를 하루빨리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군산 옥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전북도 지정 관리

월 1~2회 잔류농약검사

군산시 옥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조합장 박규석)이 최근 전북도로부터 ‘전북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지정받았다.

전북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지정되면 소비자 모니터링단으로부터 매월 1~2회 현장점검과 농산물을 무작위로 채취해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옥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및 유통을 원하는 농민들

과 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운영, 1년여 만에 35억원의 총매출액을 달성했다.

“전라북도 로컬푸드 직매장” 지정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운영원칙과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 매장에 대해 전북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매장을 의미한다.

한편 올해까지 전북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지정된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4년 3개소와 2015년 3개소 등 총 6개소이다.

/군산=박규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의회 구렁마을서 농촌일손 돕기 ‘구슬땀’

정읍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난 12일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명동 구렁마을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농촌 일손 돕기에는 우천규(사진) 의원, 박일부 의원, 조상중 의원, 이경진 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20여명이 4600㎡의 논에서 모 때우기 작업을 실시했다.

우천규 의장은 “영농현장을 직접 체험



해 볼으로써 인구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등 어려움에 처한 농촌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농민들이 행복하게 활짝 웃는 그날까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라트도랑 카페용, 산수오거리에서 20분, 광주호에서 5분거리 영업 빌딩 대지(1054㎡(319), 건물473㎡(143), 은행 2억2천만 원, 교차로가 5억7천
- 금남로 4가 병행·사옥 등 복합 5층건물 대지(648㎡(196), 건물3410㎡(1032), 감정 23억 7800만원 매도 21억7천
- 영암군 월출산 관광시설지구 대지 1026㎡(310) 건물 2086㎡(630) 민박·식당·매점 등의 시설 운영 8주전 매도가격은 협의함, 전월료양
- 금남로4가 대면본 대지 317㎡(97) 건물 1235㎡(363) 은행 4억 3천
- 임대 9년에 월 460에 임대 중 공실 있음 14억
- 대안동 사옥 등 복합건물 대지 780㎡(236) 건물 1993㎡(603) 감정가 24억 7천 매도 20억 6천2천만원
- 대안동 7층건물 대지 332㎡(100) 건물 1340㎡(423) 은행 4억 주택가주거용 임대생활에 적합 9억 5천
- 신안동 모텔 대지 364㎡(110) 건물 885㎡(268) 객실 28실 은행 7억 교차로 가능매도 9억 5천

투자·매도·교환

- 조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 318㎡(96) 건물 736㎡(228) 상가도 인질, 월료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0수익 8억7천
- 안동동 1층 주거지 1317㎡(398) 대채·빌·작업 은행 2억 7천 매도 6억 2천
- 광양·청곡역 앞 양곡 창방면 청방시장에서 7분거리 국도입 3426㎡(1036) 은행 1억 5천, 매도 3억 5천
- 나주시 중앙동 대지 331㎡(100), 건물 975㎡(234) 주인이 거주하며 보증금 2억 2천, 월 590, 은행 6억, 매도 13억 5천
- 광산구 신촌동 1층 주거지 3491㎡(1056) 소형APT적합 평당 150만원
- 광양·청곡역 앞 나주시 다도면 학신도시에서 13968㎡(4225) 은행 3억 3천만원과 교환가능 5억
- 광산구 소촌동 3층 주거지 4161㎡(1259) 소형APT등 적합 투자에도 양호 15억 7천
- 신안동 국영동 부근 노 2000㎡(605) 2억 6천
- 송정동 2층 주거지 1863㎡(560) 대채 등 적합 12억 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층 각종 유실수 회초 식재, 전망 양호, 매3억8천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층 고풍편리, 매7억
- ▶ 나주시 봉황면 죽자리 면사무소 앞 한옥 가옥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 75㎡, 점포 26㎡, 매2억4천

농지/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7,930㎡ 신축주택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면, 매12억
- ▶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전 배 과수원 6,089㎡ 생산관리 지역 투자유망 매7억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면, 매1억 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담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7,547㎡ 2차선도로면 매3억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신기리 전 2,820㎡ 2차선도로면 광주시 대촌동경계 매1억7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원
-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3,871㎡ 주택, 창고적합, 도로양호 매9천5백만
- ▶ 나주시 세지면 송채리 담7,610㎡ 2차선 국도면 도로면, 투자유망매1억5천만
- ▶ 나주시 남평면 광촌리 임야1,384,140㎡ (대지,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원
- ▶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 과수원24,884㎡ 매4억8천만
- ▶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임야 91,446㎡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전(임야)배 과수원4,914㎡ 4차선 국도면, 자연녹지, 판매장 적합 투자 유망 매12억5천만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51
이준상 ☎ 010 9510 1150

정남진 별장

꼭, 별장이 필요하신 분은!!!

접근성 주변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일 유희를 활용한 건축물로 완벽한 보안 시스템에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39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독방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에 해수욕장과, 선착장에 바다낚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명소의 정남진 별장을 선택하십시오!

토지매매

주소 : 서구 세하동(서광주역 뒤)
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그린벨트)
지목 : 전 및 대
면적 : 7,439㎡(주거-1,112㎡, 녹지-6,327㎡)
매가 : 8억 5천

투자 & 전원주택 및 농장부지 최적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법원경매

담양군 금성면 전원주택지 대지289㎡ 광주20분거리 최저가 2천만원

담양군 수북면 대지258㎡ 전원주택건축가능 최저가 2천2백

서구 화정동 준주거지역 도로전 대지499㎡ 건물913㎡ 1층~4층, 밴드광주전시장 뒤편, 주차대수 10대, 음식점추천, 건물상대층을 감정가 12억 최저가 8억4천

서구 금호동 거북빌딩7층 대지181㎡ 건물295㎡ 전망최고 패밀리레스토랑 및 외식업체추천 감정가 6억5천5백만원 최저가 2억3천5백만원

부동산 재테크 전문

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코너 지하1층~지상3층, 대지532㎡ 건물936㎡ 음식점 및 상가임대가능 감정가 8억5천4백만원 최저가 6억원

서구 농성동 621-13, 대지285㎡ 건물871㎡ 지하1층~지상4층 도로전, 코너위치, 식당추천 투자적합, 서광주KT후문, 감정가 5억7천1백 최저가 4억원

다외옥션 김용희부장
010-7147-4989

상업지역 급매

소액투자 최적합지

호텔 모텔 무인텔

즉시 건축 가능
건축허가 완료!

면적 330㎡ / 660㎡ / 1,320㎡
3.3㎡당 180만원

주인직 010-5450-1172

(주)전국부동산 경매연구소

법인등록번호 200111-018150
법인사업자번호 650-81-00051

무료 상담

“경제 취해 자금 및 후순위 담보대출 필요하신 분 상담”

본인이 직접 법원경매 입찰에 참여해서 (아파트, 주택, 근린상가, 점포·주택, 다가구/원룸 숙박시설, 공장, 토지) 취득 후 매매와 임대하여 안정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상담 합니다. (정년·명예퇴직 하신 분 환영)

사업의 종류

- 부동산 중개업(매매/임대)
-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 알선업
- 경·공매 부동산 명도 용역업
- 주택 건설업
- 경락자금 알선업

보유자격증

- 공인중개사, 경매사, 행정사
- 토목기사

방문 및 상담
062-449-2552
010-3441-1308 (주/야)
수익금 일부는 생명사랑운동본부에 후원합니다.